



“타이거즈 유니폼 어울리죠?” 자유계약(FA)선수로 롯데에서 KIA로 이적한 외야수 김주찬이 27일 새 유니폼을 입고 무등경기장에서 첫 훈련을 진행했다.

‘虎타준족’ 김주찬 “우승하러 왔다”

타이거즈 유니폼 입고 KIA 재활군과 첫 훈련
“신인의 자세로 최대한 많이 뛰는 야구 하겠다”

“우승하고 싶다.”
‘대어’ 김주찬이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었다.
예비군 훈련때문에 팀합류가 늦어졌던 김주찬이 27일 새로운 안방인 무등경기장에 첫 선을 보였다. 16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김주찬은 윤석민·서재용·한기주 등 광주 잔류군 선수들과 훈련을 하며 KIA에서의 첫 일정을 소화했다.

김주찬은 “감독님이나 구단이나 나를 정말 원한다는 걸 느꼈다. 또 우승권에 있는 팀이라 KIA를 선택했다”며 “아직 프로에서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다. 우승에 대한 생각을 했다”고 KIA 합류 소감을 밝혔다.
김주찬에게 KIA는 세 번째 팀이다.
김주찬은 총애했고 졸업을 한 2000년 삼성에서 프로데뷔를 한 뒤 2001년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로 팀을 옮겼다. 이번에는 본인이 직

접 선택한 이적인 만큼 우승이라는 목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다.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는 김주찬은 “새로운 팀에서 야구를 하게 돼서 기대가 된다. 부상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몸관리를 잘하면 되는 것이다. 걱정보다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기는 야구, 뛰는 야구가 김주찬이 생각하는 야구이고 역할이다.
김주찬은 “다들 같은 부분은 스프링 캠프를 치르고 시즌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말할 수는 없다. 감독님이 생각하신 것에 따라야 하고 맡겨주시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대한 많이 뛰

는 야구를 하고 싶다. 팀 분위기는 성적을 좌우하기 때문에 좋은 팀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팀이 이기는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로 11년차의 베테랑이지만 신인의 마음으로 팀에 녹아들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베테랑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신인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언급한 김주찬은 “나도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후배들에게도 할 말이 있는 것이다. 신인의 마음으로 신인때와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윤석민·김주찬 V11 결의

윤 “내 공 잘쳐 ... 타순보장 이상의 효과 기대”
김 “늘 끌려온 상대 ... 이전 팀 함께해 기뻐”

KIA 에이스 윤석민과 신인 호랑이 김주찬이 V11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7일 무등경기장을 찾아 재활군과 첫훈련을 소화한 김주찬은 KIA를 대표하는 윤석민과 취재진들 앞에 서서 포즈를 취했다.
적에서 동료로 만나게 된 이들의 속마음은 어떨까?
KIA와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김주찬은 ‘끌려온 상대’였다고 새 동료들에 대해 평가했다.
김주찬은 “KIA 선발진들은 끌려왔다. 다 치기 힘들다.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성적도 다르기는 하지만 타구단 선수들도 까다로운 선수들이고”고 호평했다.
어려운 상대였다는 평가를 했지만 김주찬은 그동안 KIA전에서 좋은 플레이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투수들에게도 ‘호타준족’ 김주찬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윤석민도 망설임 없이 “내 공을 잘쳐는 상대다”고 밝힌 난적. 내심 윤석민이 타순 보장 이상의 ‘김주찬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다. 김주찬을 통한 득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어려운 수싸움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시즌 두 차례 대결을 벌였던 두 선수는 장군과 평군을 주고 받았다. 그러나 내용을

들어다보면 김주찬의 편승승이다.
지난 6월10일 2년 만의 사직등판에 나섰던 윤석민은 1회 전준우와 김주찬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패조의 스타트를 끊으며 사직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내는 것 같았다.
그러나 3회 1사2루에서 전준우에게 적시타를 얻어맞은 윤석민은 김주찬에게 역전투런포를 허용하며 흔들렸다. 결국 윤석민은 이날 3이닝 6피안타(1홈런) 2사사구 3탈삼진 5실점으로 무너지며 사직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올 시즌 김주찬은 KIA전에서 48타수 11안타 0.229의 타율로 다소 부진했지만 무등경기장에서는 7경기에 나와 0.333의 타율을 올렸다.
김주찬은 “그동안 광주구장에서 성적이 괜찮았던 것 같다. 좋았으니까 내년에도 좋지 않겠냐”고 자신감을 보였다.
가장 기대가 되는 승부는 이제는 적이 된 유민과의 대결.
김주찬은 “유민이 제계약을 끝낸 뒤 문자를 보내서 삼진을 잡겠다고 했다. 유민과의 승부가 가장 기대된다”고 웃었다.
KIA와 무등구장에서의 승부에 강했던 김주찬, 타순보장 이상의 ‘김주찬 효과’가 2013 시즌에 발휘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에이스 윤석민(왼쪽) 타순의 새로운 핵 김주찬이 내년 시즌 선전을 다짐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투수 홍성민 보상선수로 롯데 간다

‘감심장’ 홍성민이 롯데의 선택을 받았다.
자유계약(FA)선수로 외야수 김주찬을 KIA에 보낸 롯데가 27일 보상선수로 사이드암 홍성민(23)을 지명했다.
한양대를 졸업하고 올 시즌 프로에 데뷔한 홍성민은 48경기에 나서 3.38의 방어율로 1세이브 3홀드를 기록했다.

191cm의 장신인 홍성민은 140km대의 직구와 예리한 체인지업을 가지고 있으며, 배짱 있는 투구로 알짜배기 활약을 펼친 유망주다.
한편 롯데는 홍성민의 영입으로 김성배·정대현과 함께 막강 ‘잡수함 라인’을 구축하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주영 5분 활약 ... 셀타 비고 원정 첫 승

공격 포인트 올리지 못해

프리코 원정 7경기 만에 첫 승을 거뒀다.
아스파스는 후반 38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로베르토 라고가 짧게 찰라준 패스를 발리슛으로 연결해 셀타 비고에 골을 안겼다. 뒤늦게 한 골을 얻어맞은 사라고사는 카를로스 아란다가 날카로운 슈팅으로 동점을 노렸지만 셀타 비고의 골키퍼 하비 바라스의 선방에 막혔고 이후 이렇다 할 반격을 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다.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주춤한 셀타 비고는 오랜만에 승점 3을 쟁겨 4승2무7패(승점 14)가 돼 15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연합뉴스

프리코 원정 7경기 만에 첫 승을 거뒀다.
아스파스는 후반 38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로베르토 라고가 짧게 찰라준 패스를 발리슛으로 연결해 셀타 비고에 골을 안겼다. 뒤늦게 한 골을 얻어맞은 사라고사는 카를로스 아란다가 날카로운 슈팅으로 동점을 노렸지만 셀타 비고의 골키퍼 하비 바라스의 선방에 막혔고 이후 이렇다 할 반격을 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다.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주춤한 셀타 비고는 오랜만에 승점 3을 쟁겨 4승2무7패(승점 14)가 돼 15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연합뉴스

“무조건 이겨야 산다” ... 광주FC 벼랑끝 승부

오늘밤 대구와 43라운드

강원과 강등권 싸움 치열

광주가 벼랑 끝 승부를 벌인다.
광주 FC가 28일 밤 7시 대구스타디움에서 대구 FC를 상대로 K리그 43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벼랑 끝에서 벌이는 승부다. 강원과 생존싸움을 하고 있는 광주는 승점 1점 차로 강등권인 15위에 머물고 있다.
앞으로 남은 경기는 두 경기. 최종전을

치르기도 전에 운명이 결정 될 수도 있다.
43라운드 경기에서 광주가 지고 강원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가슴 졸이며 전개되던 생존싸움이 광주의 패배로 끝나게 된다.
두 경기에서 모두 이기더라도 강원이 남은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한다면 역시 광주의 탈락이 확정된다. 자력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하는 절체절명의 경기다.
대구에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의 위안이다. 광주는 창단 후 대구와의 맞대결에서 패를 기록하지 않았다. K

리그 부진에서 3-2의 펠레스코어로 대구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왔던 광주는 2승3무를 기록하고 있다.
올 시즌에는 4골씩 주고받으며 3경기에서 모두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박기동은 지난해 대구를 상대로 광주 창단 데뷔골을 터트렸고 올 시즌 3경기에서 2개의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김동섭과 김은선도 대구전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부상으로 두 경기를 쉬었던 김동섭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채워

다. 경교누적으로 대전원정에 가지 못했던 주장 김은선도 그라운드에도 올 수 있다.
대구 역시 지난 라운드 인천과의 경기에서 1-2로 뒤지던 후반 42분 김유성의 동점골로 승점 1점을 추가하는 뒷심을 보여줬다. 1부리그 잔류를 확정 지었지만 홈 고별전에서 승을 신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벼랑 끝에 선 광주가 대구를 꺾고 막판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희은 2012 Dinner Show
2012 송년 디너쇼

2012년 12월 13일(목) 18시 30분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프/로/그/램

18:30 입장 19:00 식사
20:00 공연
21:30 기념품 증정

티켓가격 ₩165,000원(부가세포함)

예약 및 문의

신양파크호텔
062)228-4711~2 062)221-4101~3



특별출연
송은이